■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03-145.
http://doi.org/10.17948/kcs.2019..85.103

【특집1: 한국 전문 사전 편찬의 현재와 미래】

한국의 지명사전 편찬 동향과 지향점* **

김기혁(金基赫)***

목 차

1. 들어가면서: 지리지와 지도, 지명사전
2. 한국 지명의 속성과 사전 편찬
3. 남한 지명사전의 내용
4. 북한의 지명관리와 사전 편찬 내용
5. 맺음말: 국가 지명사전 편찬의 지향점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지리지가 백과사전 형태로 편찬되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사전은 일제강점기 지형도 제작이 계기가 되었다. 지명 조사사업의 결과인 『조선지지자료』를 시초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전이라기보다는 지명 목록집(gazetteer)에 가깝다.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명을 정리한 자료집이 간행되었고,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역사지명이 정리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국토 분단으로 인해 지명사전은 남·북한이 궤적을 달리하였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편찬되었고, 이 중 『한국지명총람』(1966-1986)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8).
** 일부 내용은 '「강원도 지명사전」 편찬을 위한 학술세미나'(강원연구원, 2019.6.21)에서 발표되었음.
*** 부산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한국지명유래집』(2008-2013)이 대표적이다. 『한국지명총람』은 전질 20권으로 간행되어 가장 규모로 편찬되었다. 내용은 당시 중앙지명위원회의 지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한국지명유래집』은 남·북한의 현재 지명을 대상으로 국토 분단 이전의 지도와 지리지를 이용하여 유래를 설명하였다. 북한은 1966년의 지명 조사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이름사전』(2001-2002)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북한 지명이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적지 않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많은 지명사전이 출간되었으나 근대 이전의 지리지, 현지 조사,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수준 있고 치밀하게 편찬된 사전은 아직 편찬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준 차이는 국토의 분단 상황이 원인이기도 하나 지명 조사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명 관심은 지명 정리 등의 기초 분야보다는 '독도', '동해'와 같은 영토 지명 연구로 집중되어 있어, 이는 연구 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 21세기의 국가 지명사전은 지명의 속성을 바탕으로 역사성과 미래의 예상되는 변화를 반영하면서, 중앙 연구기관에 의한 표준화와 다양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확장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역사지리지, 고지도, 『한국지명총람』, 『한국지명유래집』, 『고장이름사전』.

1. 들어가면서: 지리지와 지도, 지명사전

인류 기록에서 지명이 가장 먼저 서술된 주제는 역사와 지리이다. 역사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지리서는 지역을 기술하기 위해 지명을 이용하였다.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스트라본(Strabo, BC 63-AD 24년경)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지리학(Geographica)』(전 17권)을 편찬하여 세계의 여러 지역과 사람들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Ptlomy, AD 83년경-168년경)의 『지리학(Geography)』은 고대 페르시아의 지명사전을 바탕으로 2세기 로마제국의 지리를 엮었고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

동양에서도 국토와 지방의 경영을 위해 일찍부터 지리지가 편찬되었으며, 이들은 지방 단위로 만들어져 전국지리지로 종합되었다. 중국은 '방지(方志)'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지리지(地理志)'가 삽입되었다.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가

이의 예이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이전 관행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리서로서 편찬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들 책에서 지역과 지명의 서술 방법은 근대 백과사전의 형식과 유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명이 지리지에서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사전(事典) 형식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백과사전 출현 이후로, 이는 16-17세기 유럽의 지도 발달과 궤적을 같이 한다.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가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면서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양을 건너 새로운 땅을 개척한 유럽인들은 그들이 명명한 지명을 경위도 좌표를 이용하여 지도위에 기재하였으며, 이들은 로마 교황청에 전달되어 종합되었다. 항해가 빈번해지고 지리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아갔고, 1569년에 메르카토르(Gerhardus Mercator, 1512-1594)는 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세계지도를 완성하였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지구 구체를 정확하게 그리려는 노력으로 인해 여러 도법(圖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지명 기재에서 엄밀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도에는 지리지와 다르게 한 장소에 1개 지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지도 완성도는 지명의 정확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명의 기재 오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칭 기재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지도 제작에서 지명의 정확한 표기는 도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으며, 지명 표기의 원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는 그림으로 그려진 지명사전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근대 들어 유럽의 각 국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영토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지도 위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지명을 기재함으로써, 지명은 강역의 범위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 국가 지명사전이 지도와 함께 국토 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각국은 경쟁적으로 상세한 지명과 목록집(gazetteer) 사전을 편찬하였다. 때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거나, 남극 등 미지의 땅을 대상으로 자국 언어로 된 지명을 부여하기도 하였다[1].

1) 어느 국가의 강역에도 속하지 않은 해양과 육지 지명의 표준화는 국제수로기구(IHO)나 UN지명위원회(UNGEGN)를 비롯한 국제협약기구에서 지명 고시를 다루고 있다.

국가가 지명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목적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명의 표준화를 시도하여 지도에 기재할 표기 지명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리되어야 할 지명 목록을 만들고 지리적인 내용과 시대에 따른 변화, 이칭 등의 내용을 담고, 또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수록하였다. 때로는 국가는 역사적이고, 현재의 영토적인 내용이 반영된 지명의 내용을 수록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독도・동해 등의 영토 지명이 이의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명이 정리된 지리지가 일찍부터 편찬되었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지명사전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를 시초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 실시된 지명 조사의 결과물로 당시 순 한글 지명이 한자 표기로 바뀐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지명의 원형뿐 아니라 국토 지명의 역사를 실감 있게 보여준다. 광복 이후에는 남한에서 『한국지명총람』[2] 이 「지명조사사업」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이후 여러 사전이 간행되었다. 북한에서는 언어가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언어학의 일부로 다룬 지명도 이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 남한과 다른 이질적인 지명이 생겨났다.

20세기 우리 국토는 일제식민지, 분단 등의 질곡의 역사를 겪어 왔다.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이들 내용은 지명을 통해 국토에 새겨져 있다. 지명은 장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언어 기호로서, 이를 정리한 지명사전은 국토의 관리 수준과 의지를 보여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광복 이후 편찬된 남・북한 지명사전을 통해 지명이 사전으로 정리되는 모습과 지식 구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 지명사전 편찬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일제강점기 이후 발행된 지명 관련 자료와 광복 이후 남・북한에서 전국 지명을 대상으로 편찬한 사전을 정리하여[3] 해제를 통해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등을 파악한 후, 지명 항목의 서술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

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총 20권), 문교부, 1966-1986.

3) 외국 지명과 서울・경기・경북・부산 등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편찬한 지명사전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한국 지명의 속성과 사전 편찬

1) 한국 지명의 속성

'언어는 존재의 집'[4]이라는 경구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는 '지명은 장소의 집'이라는 문구로 치환될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지명을 이용하며 말하고 듣는다. 지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장소를 교환하는 소통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공간 행위를 영위한다. 말은 사람의 이름[인명], 사물[물명]과 함께 장소 이름[지명]이 결합되어 전달 내용이 구체화된다. 그러나 지명은 일상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처럼 때로는 무시되지만, 그의 중요성은 물명과 인명 못지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유서(類書)', 물명고(物名攷) 등의 사전류를 편찬하였고, 이와 함께 지리서에서는 지명을 정리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 한자 표기로 기록되었고, 한글이 사용되면서 한자와 한글 지명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순 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표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유한 형태가 많이 없어졌다.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와 외국 문화의 유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한 지명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지명 속성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표 1〉 한국 지명의 속성

	지명(地名) (place name, toponym)	물명(物名)	인명(人名)
대상	장소[地]—점(point)・선(line)・면(area)	사람[人]과 장소[地]를 제외한 모든 존재	사람[人]
공간 특징	위치에 예속(→ 순차적 점유)	위치 예속 안됨	위치 예속 안됨
명명과 변경	지역 구성원의 기호공유 → 기록 → 고시(규정) → 지도에 기재	다양(개인・사회・학자) → 백과사전으로 구현	가족 → (한)족보로 구현
	사용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변경	사회에 따라 변화	본인・가족
기호 이미지	자의성(自意性)과 지속성	기능성	(한국) 씨족(본관) ・개인적 소망
지명 형태	전부요소 + 후부요소(백두+산) - 전부요소: 색채, 방위, 이념, 유연성	주로 기능으로 기호화	(본관)성+이름

4)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1927).

〈표 1〉은 한국 지명의 속성을 물명・인명과 비교한 것이다. 지명은 인간이 지표에서 의미를 부여한 장소(place)를 대상으로 명명한 언어 기호로, 자연을 사회화한 결과이다. 지명의 유형은 점과 선, 면의 형태로 분류되고, 장소를 대상으로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고착되어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명 설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장소 값이 필수적이며, 사전에서 [정의] 부분에 가장 먼저 '위치'가 서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시기에 점유한 언어 집단이 동일한 장소를 상이하게 명명함에 따라 이질적인 지명이 중첩되는 순차적 점유(sequent occupance) 현상이 나타난다.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하여 왔던 한반도에 고대와 신라, 고려, 조선 왕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오는 동안 각 시대 지명들이 중첩되어 동일한 장소에 여러 이칭이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소 명명과 변경의 주체는 지역 사회 구성원이며, 개인의 자의적(恣意的)인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명이 사회 집단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관습, 계약, convention)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특별시를 '서울'이라 부르고 다른 사람은 '한양' 혹은 '경성'이라고 부른다면 의사소통은 매우 어색하여 진다.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지명을 사용하면, 구성원들 사이에는 일정한 약속이 맺어지고, 항상 그 약속에 따라 해당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의 합의에 의해 그 약속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이 단독으로 지명을 바꿀 수 없다.

지명의 명명에는 자의성(自意性, arbitrariness)이 작용한다. 여기에서 자의성이라 함은 공간의 사실적인 내용과 기호로 표현된 의미가 일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된 지명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강원도 춘천시 지명을 사례로 보면, '춘천(春川)'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봄내'가 된다. 그러나 이는 춘천의 지리적인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5].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5) '춘천' 지명에서 봄 '春'자를 사용한 것은 고려 940년(태조 23)에 이전의 광해주(光海主)를 새롭게 명명하면서 봄이 빨리 오는 고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수도 개성의 동쪽에 있는 고을이라는 방향성을 지닌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481면.

춘주(春州), 춘성(春城), 춘천(春川)으로 바뀌었지만 이 중 이름소인 '춘(春)'은 변하지 않고 사용된다. 이는 지리적인 사실과 언어 기호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과정 속에서 지명의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명 기호는 장소의 개별성(specific)을 나타내는 이름소와 보편적(generic)인 속성을 보여주는 형태소로 구성된다. '백두+산' 지명에서 '백두(白頭)'는 이름소, '산(山)'은 형태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언어권에서는 서양과 다르게 이름소가 지명의 앞부분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前部)와 후부(後部) 요소로 부르기도 한다.

장소 이미지는 대부분 이름소에 반영된다. 장소의 크기나 색채 등 자연지리적인 내용, 위치·방향 등 다른 장소와 관계적인 요소, 역사적 사건, 종교적인 내용 혹은 인물과 관련한 인문적인 내용 등을 반영하여 명명된다. 때로는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종교나 정치 이념을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교(예: 원효봉, 의상봉), 유교(세종로, 퇴계로, 충무로, 을지로), 풍수(청룡동, 백호산, 우면산 등), 씨족(송촌 마을 등) 지명 등이 이의 예이다. 유연성은 지명이 소재한 인근 지역의 이름을 이용하여 후부요소만 바꾸어 명명하는 경우이다. 서울의 한남동-한남대교, 원효로-원효대교 등이 이의 사례이다.

2) 한국의 사전 편찬 동향

(1)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 강점 이전인 19세기부터 지명을 정리한 책자를 간행하였다. 1894년(명치 27)에 당시 지명을 로마자, 한자, 소속행정구역, 경위도를 정리한 『조선지명안내』, 1903년(명치 26)에 한자지명과 로마자 표기를 기술한 『조선지명자휘』를 간행하였다. 1890년대에 일본 참모부는 비밀리에 『구한말한반도지형도』(1:50,000)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당시 조선의 지명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명 책자와 지도는 단순히 학문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확대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표 2〉 일제 강점기 지명 자료

유형	편찬 시기	지리지와 지도	편저자
지명 관련 자료	1910-1914년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전54책)	조선총독부
	1912년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1917년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칭일람』	오치 다다시치[越智唯七]
	194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1914-1918년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	조선총독부
역사 지명 자료	1931년(추정)	『대동지명사전』(大東地名事典)	최남선
	1936년	『대동여지도 지명 색인』	경성제국대학
	1910-1937년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이병연

* 이 지도는 『근대지형도』,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 『외방도(外邦圖)』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강점 이후 한반도를 식민지 체제로 편입하기 위하여 조선의 지리정보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지명조사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근대지도를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지명도 재구성하였다. 〈표 2〉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의 지명 관련 자료이다. 『조선지지자료』는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지명 조사 사업의 결과물이다[6]. 전 54책의 필사본으로 도별로 분책되어, 각 군의 면별로 조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함경남・북도의 자료가 전하지 않고, 전라북도편도 1편만 남아 있다. 편찬자와 시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찬 주체는 조선총독부로 추정된다. 수록 지명을 볼 때 구한말인 1896년에 개편된 지명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1910년에서 1914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료에는 지명 분류, 한자와 한글 지명, 소재지 등의 내용이 한자 혹은 한글로 수록되어 있어, 고유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행정구역 체계를 전면 재편하면서 1914년 대대적인 부(府)의 신설과 함께 정(町), 동(洞)과 통(通), 로(路), 정목(丁目)을 신설하고, 시・군과 함께 면(面)・리(里)의 통폐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래 330여 군은 220개로 줄어들면서 행정 지명의 변화가 적지 않게 나타났고, 일본은 이를 정리한 자료를 간행하였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개편 이전인 1912년 당시의 행정 지명을 정리한 것이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칭일람』(이하

6) 임용기, 「『조선지지자료』와 부평의 지명」, 『기전문화연구』 제24집, 기전문화연구소, 1996, 141-250면.

‘『신구대조』’)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과 이후의 구역을 비교한 것으로 당시 지명의 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는 1942년의 시・군별 행정 지명을 정리한 책자이다.

일본은 지명조사사업과 행정구역 개편이 완료된 후 1914-1918년에 걸쳐 측량에 의한 근대 지형도를 제작하였다. 우리나라 전역을 1:50,000 축척으로 722도엽에 그렸으며 일부 도시는 1:10,000 지도를 제작하였다. 1-4색도(色度)로 국판(菊版), 또는 사륙판(四六版)의 도면으로 간행되었으며 행정 지명은 물론 산지와 하천 지명이 일본식 한자로 쓰여 있다. 일부 지명에는 본래의 한글 지명이 일본어(가타가나)로 부기되어 있어 지명의 표기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에 의한 지명 자료 편찬과는 별도로, 조선시대 지리지나 지도에 수록된 역사지명이 정리되어 사전으로 간행되었다. 1930년대에는 최남선(崔南善, 1890-1957)에 의해 『대동지명사전』이 편찬되었다[7]. 이 책의 원 자료는 재단(裁斷)되지 않은 『아이들 보이』 잡지의 인쇄지 위에 오려 붙여 있어 엮은 시기는 1931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에 수록된 고지명 중 군현지명, 산, 섬, 암자, 하천, 사찰, 정자, 포구 지명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으로, 약 15,000여 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원고에 쓰인 표기를 1973년 편찬 당시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여 배열되었다(예시, 地:디→지, 定:덩→정, 女:녀→여, 柳:류→유), 지명 항목은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자료는 『승람』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하여 전재하고 있어, 비록 후대에 책자로 편찬되었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지명사전 편찬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3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대동여지도』를 축쇄한 영인본을 『규장각총서』로 간행하면서 별책으로 『지명색인집』을 편찬하였다. 지도에 기재된 약 11,000여 개의 지명을 가타카나 순으로 배열하여 지명의 유형, 수록첩・면수, 소속 도를 수록하고 있다(예시: 驪州(邑) 十四 11 畿). 이 책은 『대동여지도』를 대상으로 편찬한 최초의 역사지명사전이다.

---

7) 이 자료는 『육당 최남선전집』, 현암사, 1973, 170-471면의 제8권에 『삼국유사』, 『시문독본』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육당이 작성한 자료를 현암사에서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한편 전통 형식을 따른 지리지가 조선 지식인에 의해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병연(李秉延)의 『조선환여승람』은 1910-1937년까지 전국 241개 군 중 일부인 129개 군의 지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체제는 조선시대의 지리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대동지지』를 따르고 있다. 각 군(郡)을 한 권의 책으로 편제하여, 앞부분은 「조선지리총설」을 비롯한 조선 전체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으며, 뒷부분에서 각 군의 인문 지리 내용을 49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2) 광복 이후 지명 관리와 사전 편찬

① 지명 관리

광복 이후 지명과 관련하여 남한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사업은 일제 잔재의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지명을 중심으로 한 지명의 정비 작업이었다. 당시 정(町), 동(洞)이있던 서울시 행정구역의 형태소를 동(洞)으로 통일하였으며, 도로지명인 통(通), 로(路), 정목(丁目)에서 통은 로(路)로, 정목은 가(街)로 변경하였다. 지명을 정비하면서 전부요소는 조선 역사의 인물의 시호나 호를 이용하여 지명을 제정하였다. 문치의 상징으로 세종대왕, 무인으로 충무공과 을지문덕, 불교계 인물로 원효대사, 순국선열 인물로 충정공 민영환의 이름을 기념하여 각각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원효로, 충정로로 명명하였다. 이후 소화통(昭和通)은 이황의 이름을 빌려 퇴계로로 변경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지명 정비는 물론 지도 제작도 중단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군사 목적과 지형도 제작을 위해 표준화를 위한 지명 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중 군사적인 배경은 한국전쟁 당시 한·미 간 공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명 표기의 불일치로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1957년에 지명 기재와 로마자 표기의 표준화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를 설치하여 중앙지명위원회를 두었다. 1958년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각 지방에 지명제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1년에는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 12만여 개의 지명이 고시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지명의 유형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고시하거나 DB를 통해 관리하여왔다. 행정지명(시・군・구, 동・읍・면 등)은 행정안전부, 자연지명(산지, 고개, 골, 나루, 자연마을)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지명(국가・지방하천)과 도로・다리 지명은 국토해양부[8], 산림지명은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한다. 이들 지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이름, 행정안전부의 관공서 이름, 환경부의 공원 이름, 각 광역단체에서 고시한 지명 등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되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지도에 기재된다. 지명 제정과 고시가 부처별로 담당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부처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 때로는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해안에 소재한 지명의 관리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조사원 간에 빚었던 갈등 사례가 이의 예이다[9].

〈표 3〉 남한의 지명 분포(도로지명 제외)[10]

분류*	행정1	행정2	행정3	마을	자연1	자연2	하천1	하천2	해양	교통	총합계
서울특별시	26	-	732	447	66	30	55	16	-	605	1,977
인천광역시	11	27	342	840	99	78	155	72	167	11	1,802
경기도	52	149	2,257	8,010	899	683	2,628	115	62	149	15,004
강원도	19	126	1,360	6,797	1,022	1,073	2,765	74	11	70	13,317
대전광역시	6	-	198	777	81	122	112	17	-	20	1,333
충청남도	18	163	2,111	9,505	793	937	2,882	122	195	45	16,771
세종시	1	10	139	484	33	39	-	7	-	-	713
충청북도	15	102	1,526	6,383	603	604	2,249	62	-	41	11,585
대구광역시	9	11	368	777	102	87	158	21	1	61	1,595
경상북도	27	250	3,120	12,823	1,189	1,276	4,043	150	28	98	23,004
부산광역시	17	5	361	563	154	115	74	48	71	147	1,555
울산광역시	6	12	207	841	90	125	237	19	22	10	1,569
경상남도	24	206	2,251	9,021	1,191	1,121	3,677	226	463	42	18,222
광주광역시	6	-	262	645	88	123	51	-	-	29	1,204
전라남도	23	253	2,783	11,352	1,396	1,269	4,292	373	1,731	53	23,525
전라북도	17	161	1,736	8,469	877	877	2,968	43	81	40	15,269
제주도	3	12	209	795	361	28	142	1	76	-	1,627
총계	280	1,487	19,962	78,529	9,044	8,587	26,488	1,366	2,908	1,421	150,072

* 후부 요소에 따른 지명 분류
행정1: -광역시・도, 자치시, -시・군・구・행정구.
행정2: -읍・면・출장소.
하천1: (국가・지방・소하천) -강, -천, -내.
하천2: (하천 관련) -나루터, -하중도, -약수, -샘, -저습지,

8) 소하천 지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한다.
9) 현재 두 부처는 만조 시 해수면의 기준에 따라 지형물의 관리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10)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행정지명), 국토지리정보원(자연지명・마을・도서・해안), 국토교통부(하천), 교통공사 및 코레일(교통・철도역)의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014년에 필자가 정리한 것임.

행정3: -동・리.
마 을: -마을.
자연1: (산지) -산, -봉, -산지, -오름, -산성.
자연2: (기타) -고개・-골, -곡, -평야, -벌, -바위, -숲.
-온천.
해 양: -섬, -만, -포구, -곶, -등대, -해수욕장, -갯벌, -바위(해양), -해(협).
교 통: 도시철도, 철도역, 터널 지명.

〈표 3〉은 2013년을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정리한 남한의 지명으로 총 150,072개의 지명이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마을 지명이 78,000여 개로 가장 많다. 하천 지명이 26,000여 개로 이 중 대부분은 소하천 지명이다. 자연지명은 17,500여 개에 해당되며, 이 중 -산, -봉, -오름 등의 산지 지명이 9,000여 개를 차지한다. 행정지명 중 동・리 지명은 19,900여 개이다. 시도별로 분포를 보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지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명 유형의 분포에서는 자연마을은 시 지역을 제외하면 충청남도(56.7%), 전라북도(55.5%)가 비교적 높다. 산지 지명은 제주도가 22.2%로, 이들은 대부분 오름 지명으로 구성된다. 고개, 계곡 등의 지명은 강원도(8.1%)에서 가장 높고, 하천 지명도 강원도(20.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지명은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강원도는 0.1%에 불과하다.

② 지명사전 편찬

일제강점기에는 목록집(gazetteer) 수준의 사전류가 간행되으나 광복 이후에도 지명사전이 편찬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학술단체나 개인, 중앙 혹은 지방 정부에 의해 지명사전이 간행되었다. 광복 이후 남한에서 편찬된 주요 지명사전은 〈표 4〉와 같다. 최초의 지명사전은 사료에 수록된 고지명(古地名)을 대상으로 편찬한 권상로의 『한국지명연혁고』(1961)이다. 1966년부터 편찬된 『한국지명총람』(이하 '『총람』')은 1960년의 국방부 중앙지명제정위원회의 지명조사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행된 것으로[11], 지금도 남한의 대표적인 지명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홍시환은 『한국지명연구』(1968) 제하로 사전 형식을 갖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11) 한글학회,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596면.

〈표 4〉 광복 이후 편찬된 한국 지명사전(전국 단위)

시기	사전 표제	편저자(위원)	발행연도	유형	항목배열	발행인
1960년대	『한국지명연혁고』	권상로 편	1961	고지명	자모순	동국문화사
	→『한국지명연혁사전』	권상로 편	→1994	고지명	자모순	이화문화출판사
	『한국지명총람』(전20권)	한글학회	1966 (-1986)	일반	지역별	문교부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전자)	한글학회	→1991	일반	전자사전	문교부
	→『한국 땅이름 큰사전』(전3권)	한글학회	→1991	일반	자모순	문교부
	『한국지명연구』	홍시환 저	1968	일반	자모순	육군사관학교
1970-80년대	『한국지명사전』	손성우	1974	일반	자모순	경인문화사
	『한국지명요람』	대한지리학회	1983	일반	지역순	국립지리원
1990년대	『한국지명사전』	이민우	1993	일반	자모순	한국교열기자협회
	『한국 고지명사전』	이영택・정용신 편	1993	고지명	자모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년대 이후	『세계지명사전』	한국교열기자협회	2000	일반	자모순	한국교열기자협회
	『지명대사전』	이민우	2004	일반	자모순	연합뉴스
	『한국역사지명사전』(전자)	편찬위원회	2005	고지명	전자사전	누리미디어
	『한국의 지명 변천』	송호열	2006	일반	자모순	성지문화사
	『세계지명유래사전』	송호열	2006	일반	자모순	성지문화사
	『한국의 산지』	한국측량학회	2007	산지	자모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전6권)	대한지리학회	2008 (-2013)	일반	지역별	국토지리정보원
	『세계인문지리사전』	한국교열기자협회	2009	일반	자모순	한국교열기자협회
	『한국하천지명사전』	한국하천협회	2011	하천	수계별	국토교통부

1970년대 들어 손성우의 『한국지명사전』(1974)이 출간되고, 1980년대에 대한지리학회의 『한국지명요람』(1983, 이하 '『요람』')이 간행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지명총람』이 체제를 달리하여 『한국땅이름큰사전』과 함께 전자사전으로 출간되었고, 이영택・정용신의 『한국고지명사전』(1993), 이민우의 『한국지명사전』(1993)이 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대한지리학회의 『한국지명유래집』(2008-2013, 이하 '『유래집』')을 비롯하여 산지와 하천 지명만을 대상으로 다룬 주제사전이 출판되었다. 이 중 『유래집』(전 6권)은 현재의 남・북한 지명을 대상으로 고지도와 지리지를 이용하여 유래를 설명한 사전이다.

사전 편찬 주체를 보면 대부분 학회나 학술단체가 중심이며, 이외에 개인・출판사 및 언론기관에 의해 간행되었다. 학술단체에서 편찬은 관련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주로 문교부에서 지원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였다. 한편 지방 단위의 지명사전이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간행되었으며 이들은 '-지명사전', '-지명유래' '-땅이름' 제하로 간행되었다.

수록 지명에 따른 사전의 유형을 보면, 전체 지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사전과 고지명, 하천과 산지 지명 등 특정 유형의 지명만을 다룬 주제사전이 있다. 주제사전에는 고지명 사전이 가장 많다. 권상로[12]와 이영택·정용신[13]이 대표적으로, 지리지에 수록된 옛 지명의 현재 위치와 내용을 담았다. 산지와 하천 지명을 다룬 사전으로는 『한국의 산지』(2007, 이하 '『산지』')와 『한국하천지명사전』(2011, 이하 '『하천』')이 있다.

사전의 지명 항목 배치를 보면, 도-시-군 등 지역별 배열과 전체 지명을 자모순으로 배치한 2가지 유형이 있다. 지역별로 편제한 사전은 대부분 전체 일반 지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으로 『총람』, 『요람』과 『유래집』이 대표적이다. 『하천』은 하천 수계별·자모순으로 항목이 배열되어 있다. 지명사전에서 지역별 구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편찬 목적이 단순히 지명의 언어학적 해석을 넘어, 지역 내에서 지리적 배경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명 유래를 설명하고,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의 지리적인 성격을 파악하면서, 지방 단위 사전 편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들 사전에서는 지명 검색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자모순으로 정리된 색인을 별도의 부록으로 담고 있다. 이에 비해 고지명을 다루거나 산지 및 언론사 등 특수 목적으로 편찬된 사전에서는 전체 지명이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자사전 형태로도 간행되기도 하였다. 한글학회[14]와 역사지명편찬위원회[15]에서 편찬한 사전이 이의 예이다.

이외에 지명사전은 아니나 백과사전을 통해 지명 지식이 적지 않게 정리되었다. 대표적인 사전은 『동아원색대백과사전』(1982)[16]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2) 권상로 편,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1961.
13) 이영택·정용신 편, 『한국 고지명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14)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 사전』 상·중·하, 한글학회, 1991.
15) 한국역사지명사전 편찬위원회, 『한국역사지명사전』(전자), 누리미디어, 2005.

(1991)[17]이다. 이외에 2000년대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군별)『한국향토전자대전』에는 각 지방의 상세한 지명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지명 관련 서적으로 『지명유래집』(1987)[18]과 『한국의 지명』(1986)[19] 등이 있다. 이들은 지명 연구서로서 한국 지명의 형태와 유래 및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리서로는 대한지리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리』[20]가 있다.

3. 남한 지명사전의 내용

1) 일반 지명사전

(1) 학회 및 학술단체

① 해제

가. 『한국지명총람』[21]

한글학회에서 문교부의 지원으로 20여 년에 걸쳐 전국을 도별로 나누어 편찬한 지명사전이다. 중앙지명위원회의 지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광복 이후 한국 지명사전에 큰 획을 그은 편찬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책에 담긴 지명은 자모순으로 재편집되어 1991년 『한국땅이름큰사전』(상·중·하)이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22]과 함께 발행되었다. 책의 간행은 1966년에 「서울편」을 시작으로 시작되어 1986년에서야 「경기편(하)」가 간행되면서 편찬이 종료되었다. 「경기편」의 출판이 늦어진 것은 사업 초기 당시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1976-1977년에서야 조사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사전의 지명 항목은 도별·시군별로 편제되었으며 각 지역의 유형별 자모

16) 동아출판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전30권), 동아출판사, 1982. 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2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18) 한글학회, 『지명유래집』, 국립지리원, 1987.
19)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20) 대한지리학회, 『한국지지』 Ⅰ-Ⅴ, 국립지리원, 1984-1988; 『한국지리지』 1-5, 국토지리정보원, 2004-2008.
2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전18권 20책), 문교부, 1966-1986. 4·6배판, 각 권 500면 내외.
22) 이 전자사전은 제작 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배포가 중단되었다. 한글학회 관계자와 면담, 2018년.

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전의 편찬 형식은 책의 「일러두기」에 설명되어 있다. 지명항목[올림말]에서는 '자연물・인공물・기타로 말미암아 생긴, 지역성・역사성・대중성을 지닌, 땅의 이름'으로 지명을 정의하였고, 항목으로는 이칭, 문헌 지명, 유래가 없고 이름만 있는 지명도 포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배열[지명의 벌임]에서는 도(특별시, 직할시 포함), 구・시・군에서 자모순으로 배치하고, 법정동에서 분리된 행정동은(예: 공덕1・2・3・4동) 숫자순으로, 동・리 등 소지명은 해당 시군구에서 지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산지와 하천 등 자연지명은 시・군・구 앞에 별도로 두었으며, 1개 동・리에 속한 자연지명은 해당 동・리에 두었다.

지명의 설명 방법[풀이 방법]에서는 지명의 어원과 유래, 변천 과정과 자연환경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여러 이칭 중에서 항목 선정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하거나, 비슷할 경우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을 표준으로 삼았음'으로 밝혔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명의 경우 '연고가 더 많은 동리'에서 설명을 달고, 다른 동리에서는 '⇨' 표시로 풀이가 있는 동리의 내용을 참조하게 하였다.

첨부 이미지[지도・사진 붙임]에서는 지명 이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서두에 지도와 사진을 삽입하였다. 서울특별시에 첨부된 지도는 「경도도」(1711년 이전), 「경조도」(1875), 「도성삼문분계지도」(1861), 「수선전도」(고종 초), 「서울지도」(1902), 「경성부지도」(1911) 등의 흑백 지도이다[23]. 지명항목[지명 종류 표시의 부호] 설명에서는 지명 분류와 유형을 굵은 꺾쇠를 이용한 [특별시], [강], [고적] 등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서울편」에서 행정 지명은 위계에 따라 11개 유형, 자연지명은 강, 고개, 골, 나루, 섬 등 32개 유형, 인공지명은 고적, 다리, 수원지, 운동장 등 37개로 분류하였다.

이 사전은 정부의 지명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당시 지명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간략하나

23) 이 중 「경조도」에 대해 책에서는 '고종12년=1875년 고산자 만듦'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지도 이미지가 「대동여지도」(1861)에 수록된 「경조오부도」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1861년(철종 12)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마 지도 수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명의 유형에 따라 대부분의 지명은 위치만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어 당시 지명조사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료 정리에 그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나. 『한국지명요람』[24]

대한지리학회에서 전국에 소재한 주요 지명을 대상으로 편찬한 지명사전이다. 수록 항목은 남한의 행정지명과 주요 자연, 인문 지명이다. 행정 지명에서 리·동은 주요한 것만을, 일반 지명(자연·인문)은 지명도가 높거나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것만을 표제어로 하였다(예: 한강, 지리산). 배열 순서는 '한국'을 맨 앞에, 그리고 특별시, 직할시, 각 도 등은 정부 간행물에서 사용하는 순서에 따랐다. 이에 따라 장별 순서는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일반지명으로 구성되었다. 광역시·도 내에서 시·군·구, 읍·면·동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으며, 행정지명 뒤의 일반지명은 자연·인문 지명을 구별하지 않고 자모순으로 하였다. 지역별 지명 뒤에 첨부된 「일반지명편」에서는 산, 산맥, 령, 하천 등 10개 항목에 대해 자모순으로 배치하고, 이의 지리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항목별 원고량은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항목은 147행, 중항목 49행, 소항목 20-15행, 기타 지명 3-15행으로 배분하였다. 시, 군, 구 단위 이상의 지명 내용은 「위치」-「연혁」-「자연」-「산업」-「교통·관광」-「도시·인구·취락」으로 구성하였다.

지명 항목은 한글 지명과 '[ ]' 속에 한자와 로마자 표기를 하였으며 이칭이 있으면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로마자 표기는 문교부 지명 표기에 따랐으며 일시 표시는 '년'과 '월·일'을 생략하였다. 통계수치는 내무부, 지방행정구역요람, 인구센서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위치 서술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 따랐다. 첨부된 「색인」에서 항목은 광역시·도별로 유형에 관계없이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강원도 항목의 사례로 보면 도 지명은 7면에 걸쳐 서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24)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명요람』, 국립지리원, 1983. 4·6배판, 전1권, 853면.

개관에 이어 [위치]-[연혁]-[자연]-[산업]-[교통・관광]-[교육・문화]-[인구] 항목에 대해 지지적(地誌的)인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산지와 하천을 유형과 관계없이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은 『한국지명요람』으로 책 제목을 표제어로 삼았으나, 지명의 유래와 변화, 언어학적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단지 지리적인 내용만 서술되어 있어 지지(地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책의 편제는 광역시・도는 행정구역 순서에 따랐으나, 시・군・구 순서의 경우 유형별 자모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다. 『한국지명유래집』[25]

대한지리학회에서 6년에 걸쳐 사료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지명 유래를 정리한 사전이다. 책은 중부편(서울, 인천, 강원), 충청편, 전라・제주편, 경상편과 북한편 Ⅰ・Ⅱ 등 5권 6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 편제는 대도시 권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중부편』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강원도, 『충청편』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지명을 수록하였다. 『전라・제주편』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지명이다. 제주도가 이 권역에 포함된 것은 조선시대에 전라도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경상편』에는 부산과 대구,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경상남・북도 지명을 담았다. 『북한편』은 관북과 관서 지방으로 나누어 2권으로 구성되었다. 제Ⅰ권은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비롯하여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지명을 담았으며 제Ⅱ권에는 나선특별시를 비롯하여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지명이 수록되었다.

각 책은 750-930여 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록 지명은 '남한편'에는 권당 2,500-4,000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편』은 약 8,000여 개로, 면수에 비해 수록 지명이 많은 것은 1952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남한의 '면(面)'에 해당하는 구역이 폐지되어 '리(里)'로 되면서, 이의 내용이 [표]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25)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국토지리정보원, 2010a;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2010b;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2011; 『한국지명유래집: 북한편』, 국토지리정보원, 2013. 4・6배판, 전5권 6책, 각 750면 내외.

체제는 각 권역의 시군별 체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지명과 자연지명 순으로 배열되었다. '남한편'에서 행정지명 항목은 시·군·구과 동·읍·면 지명으로 정리되었다. 자연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지명,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지명, 각 지방의 향토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명 목록 중 집필위원회에서 고지도와 지리지에 의해 서술이 가능한 지명이 서술되었다. 『북한편』에서 행정지명은 남한에서 발행한 『북한행정구역개황』(2008)[26]을 중심으로 『조선중앙연감』(2010, 2011, 2012)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명 항목을 추출하였다. 자연지명은 「북한지세도」(1:250,000, 국토지리정보원)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고장이름사전』(2000)으로 보완하였다. 각 시·군 구역 앞에는 지세도를 이용한 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지명 항목의 배치에서 남한 행정지명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랐으며, 지역 내에서는 위계(구-동-읍-면) 내에서 자모순으로 배치되었다. 자연지명은 산지-하천-해양-기타지명 순으로 하였고, 유형별 자모순으로 배열되었다. 자연지명에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먼저 수록되는 구역에 배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참조 표시를 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지명의 해석 의미가 다르면 두 지역에 함께 수록하였다. 산지는 국토지리정보원 자료[27]에 정리된 고도를 이용하였다. 『북한편』에서 시·군 배치 순서는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2009)[28]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항목 배열 체제는 남한과 동일하다.

항목별 원고 매수는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배분 원고량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각 항목의 서술 분량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지명에서는 광역시·도 지명은 원고지 6매 내외, 시·군·구 지명은 3매, 동·읍·면 지명은 2매, 산과 하천 등 자연지명은 2매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은 고지도와 지리지, 집필위원들의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표제어는 한글-한자-로마자 표기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로마자는 국립국

26) 국가정보원, 『북한행정구역개황』, 국가정보원, 2008.
27) 국토지리정보원, 『산지고도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07.
28) 북한중앙통계국,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북한중앙통계국, 2009.

어원의 『로마자표기용례』(2000)에 준하였다. 지명 설명에서는 고지도와 지리지 등 사료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래와 함께 연혁, 어원, 장소의 지명에 얽힌 구전 설화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고, 고지도에서 묘사된 해당 장소의 이미지가 첨부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지명사전 편찬사 차원에서 볼 때 2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는 광복 이후 최초로 남·북한 지명이 동일한 체제에 의해 함께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 이전의 고지도와 지리지가 대부분 남한에 소재하여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국토가 동일한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둘째는 지명 유래의 설명에서 이전 지명사전과는 다르게 고지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행정단위의 서두에 지형도를 수록하여 지명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서술에서는 지명이 수록된 지도 이미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서술의 신뢰도를 높였다. 책의 아쉬운 점은 책의 분량의 제한으로 리와 마을 지명이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고, 북한의 경우 문헌자료에만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② 지명 항목 서술 비교

이상과 같은 학술단체에서 발행된 3종의 지명사전에서 내용 구성은 편찬 시기와 목적, 주관한 학술단체의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표 5〉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중심지에 소재한 '광복동' 지명에 대해 『총람』, 『요람』과 『유래집』의 기술 내용이다. 내용 구성에서 『총람』은 '[동]'으로 지명 유형을 표시한 후 지명의 변천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일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가 부기되어 있고, 가능한 한 한글을 전용하였다. 지명 변천은 나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요람』에서는 항목에 한자와 로마자가 부기되어 있다. 내용은 면적, 인구 등의 통계와 함께 지명 변천이 약술되어 있다. 도시 중심지로서의 지리적인 특색에 중점을 두어, 지명 유래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대부분 지명과 용어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유래집』의 지명 항목은 한자와 로마자 표기가 병기되어 있다. 이 중 로마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29]에 따르고 있다. 내용에서는 지명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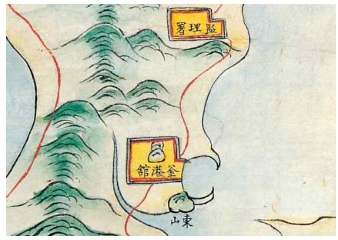
의와 함께 지리적인 위치-지명유래-역사적 배경과 변천을 서술하고 있으며 『영남읍지』(1871)에 수록된 고지도의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여 지명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문장은 비교적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한자는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다.

〈표 5〉 학술단체 발행 지명사전 서술 내용 비교(부산광역시 광복동 사례)

『한국지명총람』 **광복동(光復洞)** 【동】 본래 동래군 부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14년(1877) 1월 30일 소위 부산구조계조약(釜山區租界條約)에 따라 일인들이 몰려들어 조차지라는 명목으로 부산의 주요 중요지를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로 정하여 왜식으로 변천정 1정목, 2정목, 3정목이라 하였는데. 1947년 7월 20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광복동 1가, 2가, 3가로 고치고, 1959년 1월 21일 동제개편에 의하여 광복동 1가, 2가, 3가와 신창동 1가, 2가, 3가, 4가와 창선동 1가, 2가를 합하여 광복동으로 함.[30]

『韓國地名要覽』 **광복동[光復洞, Gwangbog Dong]** 면적 0.2㎢, 인구 5,129인, 中區에서 人口가 가장 적은 洞으로 中區의 中央部에 있으며 中央洞・富平洞・大廳洞 등과 인접해 있다. 본래 東萊郡 釜山面의 地域인데 草梁倭館의 西館이 있었으며 開港以後 日人專管 居留地로 되어 辨天町이라 했다가 1947년 光復洞으로 고치고 1959년 光復洞 1,2街와 新昌洞・昌善洞을 併合해 光復洞이 되었다. 釜山의 商業中心地로 高級專門商店, 國際市場自由市場・도떼기市場, 많은 百貨店, 高級觀光호텔 등이 있어 晝間에 人口가 크게 집중된다.[31]

『한국지명유래집』 **광복동 光復洞 Gwangbok-dong** 구의 동남부에 위치한 동이다. 용두산(龍頭山, 49m)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부산의 중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지명은 광복 이후 일본의 동명을 개칭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라의 광복을 기린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이곳은 초량왜관이 있던 곳이다. 왜관의 주요 건물은 동관(東館)과 서관(西館)이었는데, 이 건물들은 용두산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었으며 그 중 동관은 광복동・동광동 쪽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 중 광복동은 변천정(弁天町)・금평정(琴平町)・서정(西町)・행정(幸町)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변천정은 초량왜관 내의 용두산에 있었던 일인의 변재천신사(弁才天神社)에서 따온 이름이고, 서정은 서관(西館)에서 따온 지명이다. 관할 법정동으로 광복동외에 창선동과 신창동이 있다. 창선동(昌善洞)과 신창동(新昌洞)은 일제 강점기에 행정(幸町)과 서정(西町)에 해당되는 지역이다.[32]



『영남읍지』의 광복동(부항관) 일대

29) 문화관광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2000.
3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제10권 경남편・부산편, 한글학회, 1980, 560면.
31) 대한지리학회, 「부산직할시」, 『한국지명요람』, 국립지리원, 1983, 98면.
32) 대한지리학회, 「부산광역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2011, 49면.

(2) 개인 편찬 사전

가.『한국지명연구』[33]

전국 지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소책자 형태의 사전이다. 편저자인 홍시환(洪始煥, 1925-?)은 자연지리학을 전공하였으며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재직하였다.『한국의 동굴』(1990)[34] 등의 저서가 있다. 책의 표제는 '지명연구'이나 내용은 사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시 지명을 기준으로 간략한 지리적인 지식을 소개한 지명사전이다. 책의 부록에 55종의 한국 주제지도와『한국통계자료』가 있다. 통계 자료는 각 도의 개관과 함께 경제기획원에서 1967년에 발행한 통계표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지명 항목의 추출 기준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항목 수는『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 1,000개 내외로 추정된다. 지명 배열은 유형에 관계없이 자모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설명은 5-6줄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지명 설명은 위치와 유형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이후 지리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시・군 지명에는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지명 변화와 연혁 내용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나.『한국지명사전』[35]

1974년 남한의 10,000여 개 지명을 대상으로 편찬한 지명사전이다. 저자인 손성우(孫成祐)는 도서관 사서로 종사하였으며『일본저자명편람』(1967)을 편저하였다. 사전에서 행정지명은 시・도・구・군・ 읍・면까지 수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동까지 서술하였다. 자연지명은 중요한 산, 강(천), 도서, 해, 해협, 만, 분지, 고원, 평야, 저수지 등이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외에 남한 전역의 주요 철도와 역, 관광지와 중요한 정자, 사찰, 누락, 서원, 진, 고분, 성 들을 담았다. 이외에 종합대학, 비행장, 교량, 터널 지명도 수록하였고, 고지명이나 이칭 등도 독립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항목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중자음은 단자음에 이어 배치하였다. 표기가

33) 홍시환 편,『한국지명연구』, 육군사관학교, 1968. 국판, 전1권, 284면.
34) 홍시환,『한국의 동굴』, 대원사, 1990.
35) 손성우,『한국지명사전』, 경인문화사, 1974. 4・6판, 전1권, 782면.

동일한 지명은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 배열하였다. 부록에서는 1945년 8월을 기준으로 『북한지구 행정구역』을 수록하였다.

항목별 서술 내용을 보면, ㉠ 행정구역: 인구수, 면적, 지명의 변천과정, 주요 특징과 특색, 주요 산물, 특기 사항, ㉡ 도서: 면적과 인구, 동, 리 수와 위도 및 경도, 인근 지역과의 거리, 특산물, ㉢ 자연지명(산, 강, 해, 평야): 길이, 넓이, 높이와 위치, 지명 유래, 주요 특색, ㉣ 역사지명(정자, 사철, 성곽, 누락, 관방진, 서원): 건립 연도와 그 역사, ㉤ 철도, 역: 설립연도, 규모, 위치, 그 역과 관련된 철도 노선명, ㉥ 종합대학: 건립 연도, 소재지, 단과대학 수를 수록하였다. 서술에서 길이와 높이, 면적은 미터법에 의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저수지의 면적은 평수로 표기하였다.

다. 『지명대사전』[36]

연합뉴스에서 언론 기사의 지명 표준화를 위해 편찬한 지명사전이다. 책의 제1부는 한국지명, 2부는 세계지명 일반 3부는 중국지명, 제4부는 일본지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도 채색으로 인쇄되었다. 편저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역임하였다. 「한국지명편」에서는 남한과 북한 지명을 함께 다루었다. 지명 표제어는 면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명과 주요 자연지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구-군-읍・면 지명의 말미에 소속 리 일람을 수록하였다. 구 지명에는 별도의 해설 없이 동명 일람만을 실었다. 인구와 면적은 『지방행정구역요람』(2003)[37] 내용을 전재하였다. 지명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설명은 기존 사전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북한 지명은 군 단위 이상만을 대상으로 분단 이전의 지명과 이후 신설된 지명을 수록하였고, 부록으로 북한의 1945년과 2003년의 행정지명 목록이 있다. 자연을 포함한 모든 지명은 분단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36) 이민우 편, 『지명대사전』, 연합뉴스, 2004. 국판, 전1권, 1,342면.
37)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2003.

라. 『한국의 지명 변천』[38]

지명의 유래와 변천을 정리한 사전으로 『세계지명유래사전』(2006)과 함께 출간되었다. 지명 항목은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자모순으로 배열되었다. 항목 선정과 관련하여 「일러두기」에 행정지명의 경우 남한은 2006년 2월을 기준으로 법정면과 동 단위까지로 하였으며, 일부 법정동은 위치 및 소속만 간략히 소개하고 행정동을 참조하였다. 부록으로 남한의 특별시, 광역시, 도별 지도와 함께 북한의 행정구역지도(1944, 2005)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 표제어는 한글과 한자를 부기하였다. 설명은 지명의 연혁과 행정구역 변천 과정과 함께 해당 지역의 주요 특산물과 중심 산업 내용을 담아 지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러두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출판사에서 제공된 지명 항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뚜렷한 편찬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술의 내용도 제시된 참고 자료로 볼 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지식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북한 지명은 "1945년 8월을 기준으로 한 시·군 지명을 항목으로 선정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어서 "각 지방의 명칭뿐 아니라 각종 교과서 및 신문 등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지명을 망라하였다."라고 언급하여 일정한 원칙 없이 수록하였음을 보여준다.

2) 주제 지명사전

(1) 고지명사전

가. 『한국지명연혁고』[39]

광복 이후 최초로 편찬된 지명사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리지에 수록된 고지명의 현재 위치, 연혁, 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인 권상로(權相老, 1879-1965)는 불교 승려로서 학계와 종교계에 걸쳐 널리 활동하였다. 책은 본문 436면과, 이와 별도로 연표(年表)를 담은 부록(61면)으로 구성되

38) 송호열 편, 『한국의 지명 변천』, 성지문화사, 2006. 국판, 전1권, 960면.
39) 권상로,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1961. 국판, 전1권, 497면.

었다. 본문은 자모순으로 정리된 고지명 항목이 1-338면에 2단 조판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339-436면에 『역대지리연혁일람표』, 『신라구주행정구역표』 등 12개 주제를 정리한 내용이 부록 형태로 첨부되어 있다.

항목은 조선시대 지리지 등 사료에 수록된 지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광복 후에 나타난 지명도 함께 수록하였다. 수록 항목은 약 3,000여 개로 추정된다. 내용 구성은 현재의 위치 비정과 유래 변화 내용을 약술하고, 유형에 따라 원고 매수를 달리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항목의 경우 역사지리적인 변화, 지리지에 나타난 소속 군현, 지리적인 위치와 행정구역 내용을 거의 1면의 분량에 수록하였다.

본문과 함께 첨부된 부록은 한국 역사지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담고 있다. 「부록 1」에서는 삼국시대, 남북조시대-고려-조선-현대까지 시대 변화에 따른 지명 변화를 도별로 정리하였다. 「부록 2-6」에서는 신라, 고려, 조선과 1895년과 1896년의 행정구역 지명이 정리되어 있다. 「부록 7-9」에서는 국명(國名), 팔도, 도별 감사의 이칭을 소개하였으며 「부록 10-11」에서는 진한·마한과 변한·진한의 위치 비정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 12」에서는 당시 부설된 철도선 역 이름과 이정표가 정리되어 있다. 「별지 부록」에서는 12간지 연표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연표가 수록되어 있다.

나. 『한국고지명사전』[40]

지리지에 수록된 지명의 현재 위치, 연혁, 지리적인 내용을 담은 사전이다. 편저자인 전용신(田溶新, 1921-)은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재직하였으며 『(완역)일본서기』를 간행하였다. 수록된 지명 항목은 약 700여 개로 추정되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과 『대동여지도』(1861) 등에서 추출하고 『삼국사기』 지명으로 보완하였다. 이 중 『대동여지도』의 산천은 생략하였고, 고적 중 성은 생략하였다. 봉수는 일괄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역원 중 역은 본문에 수록하였지만, 원은 표로 제시하였다. 자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따랐다. 서술 내용은 편찬 목적이 고지명의 현재 위치를

40) 전용신 편,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4·6판, 전1권, 452면.

밝히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앞의 『한국지명연혁고』와 다른 점은 관방, 역원, 봉수를 새로이 수록한 점이다. 그 대신 각 군의 고도, 경위도 등 수치로 표현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다. 『한국역사지명사전』[41]

고지명을 대상으로 이의 현재 위치와 내용을 전자 형태로 구축된 지명사전이다. DBPIA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제품소개」에 의하면 5,700여 개의 표제어로 구성되며, 관련 이미지 500여 점을 수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명 설명은 이전의 고지명사전의 수준을 넘고 있지 않다.

(2) 산지・하천 지명사전

가. 『한국의 산지(山誌)』[42]

한국측량학회에서 남한에 소재한 산지를 대상으로 사전 형식으로 편찬한 책이다. 항목은 3단계 절차를 거쳐 비교적 상세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제1차로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공원 지역의 산 44개를 선정하였고, 2차에서는 시・도의 추천 및 기존 명산 선정에 여러 차례 선정된 27개를 추가하고, 3차에서는 선호도, 인지도 등 5가지 척도를 통해 29개 산을 추가하여 100대 명산을 선정하였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에 수록된 산 지명을 종합하여 700개의 산지 항목이 사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색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산명 찾아보기』와 함께 이칭 색인집을 별도로 수록하고 시・도별 산명 목록을 첨부하였다.

책 편제에서 제1장(개관)은 한국의 산 개설과 편찬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은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16개의 산에 대해 지리지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는 700여 개의 산지 지명을 사전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지명의 서술 내용에서 국립공원은 개요(위치 및 규모・명칭 유래), 자연(지형・지질・기후・동식물), 인문(역사・문화유적・전설・주민생활・관광과 명승지), 관련

41) 한국역사지명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전자사전, 452면.
42) 한국측량학회, 『한국의 산지(山誌)』, 국토지리정보원, 2007. 4・6배판, 전1권, 631면.

자료(문학작품・지리지 및 고지도, 그림), 관련 문헌 목록으로 구성하여 지역 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산의 이름, 위치 및 규모, 특징과 고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산을 대상으로 편찬된 대표적인 주제별 사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한국하천지명사전』[43]

남한에 소재한 하천 증 국가・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지명 유래를 사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사전이다. 항목은 『한국하천일람』(2009)에 수록된 3,833개 지명을 바탕으로, 중복과 이칭 지명 등을 조정하여 총 3,782개, 이칭 지명 418개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배치 순서는 권역・수계별로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나누어 자모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수계 지명과 동일한 하천은 제일 앞에 배치하였다. 수계의 순서는 『한국하천일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제주도는 별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수계로 분리하였다.

표제어 구성은 지명, 한자, 로마자표기, 하천코드, 이칭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한자 표기는 『한국하천조사서』(1992)를 기준으로 하였다.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표기용례』에 준하였다. 이칭은 전부 수록하였으며 관련 지명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였다.

서술 내용은 하천 소재지, 유로 연장, 유역 면적, 유로를 비롯하여 지명의 내용과 유래, 근거가 되는 사료, 지명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 소재지는 종점을 기준으로, 유로 및 유역 면적의 통계는 『한국하천일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명 유래는 고지도와 지리지 등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 문헌과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지명별 원고 매수는 특정 하천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사전에 수록된 지도는 하천유역도와 조선시대 군현지도,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된 『조선지형도』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지명 편찬사에서 볼 때 이 책은 광복 이후 최초로 하천 지명과 유로를 정리한 데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항목이 수계별로 배열되어 있어 시・군별 하천의 파악이 어렵고 남한의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43) 한국하천협회, 『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교통부, 2011. 4・6배판, 전1권, 759면.

4. 북한의 지명관리와 사전 편찬 내용

1) 지명 관리와 사전 편찬

(1) 지명 관리

분단 이후 북한의 지명 관리는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에 입각한 언어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4년부터이다. 그해 1월 김일성은 언어학자들을 모아놓고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제하로 간담회 형식으로 언어정책 전반에 대한 교시를 하였다. 여기에서 언어를 혁명 수단으로 보아 사회를 개조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명시하였으며, 동시에 주체적 언어사상을 추가하고 있다[44].

지명 정책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는 1966년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 제하의 김일성 교시이다. 여기에는 "지명에서 가능한 한 고유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지명조사의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원래 북한은 지명 조사 사업을 1964년 4월에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방대하고 언어학자들의 힘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직접 교시를 통해 지시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년 6개월 만에 약 47만여 개의 지명이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이후 지명 정책의 기초자료와 사전 편찬에 활용되었다[45].

북한이 지명조사사업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표는 지명 정리를 위한 것이면서 기본 원칙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일시에 청산하는 것이었고, 고유어로 된 고장 이름을 적극적으로 살려 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표는 지명을 사회주의에 대한 충성심이나 북한이 낙원사회임을 표현하는 등 정치사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명을 정치 이념을 반영하는 고유어로 바꾸거나, 기존 지명의 유래를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재해석하였다.

---

4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8: 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a, 18면.
45) 박재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원, 1999; 『조선언어학에 대한 연구』, 박이정, 2000 재출판.

이와 같은 지명 관리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은 북한의 지명 연구서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조선어학전서』 편찬의 일환으로 『조선어명칭론』,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 연구』, 『조선지명학』, 『조선지명연구』의 4권의 책을 발행하였다[46]. 이들 책에서는 지명 관리를 지명의 '창조'와 '정리'로 구분하고 있다. 창조 지명은 1966년 조사사업이 마무리된 후 지명의 주체적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업적을 찬양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유형은 ㉠ 김일성 가계에 속한 인물들의 이름이나 상징어를 이용한 인명지명(예: 금성거리, 김정숙군 등), ㉡ 혁명 현장의 지명을 이용하거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장 지도내용을 반영하는 혁명 지명(예: 영광동, 충성동, 은덕동 등), ㉢ 기존의 한자 지명을 바꾼 고유어 지명(예: 새길리, 새별동, 해빛리 등) 등이다.

정리 대상 지명은 "주체적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봉건 지명으로 조선 태조의 본향인 함흥 일대의 지명이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사직동을 승전동으로, 태평동을 내성동으로 바꾼 것이다. 함경북도 북부에 분포하는 여진어 지명도 정리 대상이 되었다. 아오지리가 학송리, 주을리는 하온포리 등으로 바뀐 것이 이의 예이다. 불교 관련 지명도 대상이 되어 석왕리는 1981년 광명리로 바뀌었다[47].

(2) 지명사전

〈표 6〉은 북한에서 편찬된 지명사전으로, 대부분 1980년대 이후 발행되었다. 이 중 『고장이름유래집』(1986)은 행정구역과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반 참고서로 만든 것이다. 현재 행정지명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밝힌 편람으로 지명의 역사적 변천 내용을 다루었으며 합성 지명의 바탕이 된 기초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 명명한 지명에 대해서도 근거를 소개하고 있다[48].

---

46) 김기혁, 「북한의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14-30면.
47) 조창선, 『(조선어학전서 37) 조선지명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151면.

〈표 6〉 북한에서 편찬된 지명사전

연도	사전 표제	저자 수	권수
1986	『고장이름유래집』	김봉환 외 5명	미상
1992	『고장이름변천역사』	김봉환	미상
1995	『조선지명사전』	박태훈 등	510면
1998	『지명이야기』	미상	11권
1998	『남조선지명』	미상	5권
1999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	리성남・윤광현	미상
2000-2002	『고장이름사전』	117명	10권
2001-2002	『조선지명편람』	10명	10권
2004	『조선향토대백과』(백과사전)	약 1,000명	20권

『고장이름변천역사』(1992)는 고장 이름을 지명의 구조와 조성 수단 및 수법, 표기 방식 등 국어 음운 변화사와 관련하여 서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지명이야기』(1998)와 『남조선지명』(1998)은 북한의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책이다[49]. 한편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1999)은 『조선지명사전』(1995)을 이용하여 구축한 전자사전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출간한 지명사전으로 가장 본격적인 것은 2000년대 간행된 『고장이름사전』(2000, 이하 '『고장』')과 『조선지명편람』(2002, 이하 '『편람』')이다. 특히 『고장』은 북한 스스로 국가 보물급으로도 평가하고 있는 사전이다. 『편람』은 『조선어학전서』(전65권)의 편찬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으로 제7부 중 제54권-제64권에 해당된다.

2) 주요 사전의 내용 구성

(1) 해제

가. 『고장이름사전』[50]

이 사전은 1960년대 지명 조사 결과물인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를

48) 박재수, 앞의 책, 2000, 304-305면.
49) 같은 책, 307-308면.
5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고장이름사전』(전10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4・6배판, 각 권 500면 내외.

기본으로 하였다. 약 30만 개의 지명의 유래를 담고 있으며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지명, 고지명(古地名)까지 수록하고 있다.

〈표 7〉『고장이름사전』의 편찬 체제(발생연도순)[51]

지역	면수	발행일	참여(명)	책임 집필
평안남도	567	2000.12. 10.	51	정순기
평양시, 남포시	379	2001. 4. 15.	49	정순기
평안북도	631	2001. 6. 10.	54	박명훈
자강도	310	2001. 8. 20.	53	류 렬
함경북도・라선시	499	2002. 1. 20.	48	조창선
함경남도	609	2002. 2. 10.	49	정용호
황해남도	477	2002. 3. 10.	51	한정직
강원도	432	2002. 3. 20.	51	김성근
황해북도・개성시	453	2002. 3. 30.	54	최정후, 주충섭
량강도	235	2002. 4. 10.	50	강진철

〈표 7〉은 이 책의 서지 내용이다. 전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면수는 4,592면에 달한다. 도별 분량은 평안북도가 631면으로 가장 많으며 자강도가 235면이다. 발행일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00-2002년 사이이다. 10권 모두 정순기가 편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역별로 집필 책임자가 별도로 소개되어 있다. 참여 인력은 각 책당 50명 내외로, 전체를 합치면 509명이다. 각 도별로 보조원으로 추정되는 3-5인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한 학자가 여러 권의 집필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10권의 집필에 참여한 학자는 36명에 달하고 있으며, 총 117명이 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 항목은 도-시・군-리별 행정과 자연지명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북한에서 '리'는 남한의 면에 해당된다.

이 사전에 수록된 내용은 남한에서 남・북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조선향토대백과』(이하 '『향토』')의 지명 설명에 전재되었다.『향토』에는 지명 외에 북한의 시군별 내용을 종합하여 향토 관련 항목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시군별로 편제되어 있어 한국의 전통 지리지 형식을 따르고 있다. 체

51) 김기혁, 앞의 글, 2013, 21면.

제와 내용 구성은 남한의 『향토문화전자대전』[52]과 유사하다. 북한 학자들이 집필한 원고를 중국 측에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남한이 편집 작업을 통해 편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서 사회주의 찬양 내용을 삭제하고, 남한 문법 형식으로 내용을 서술하였다[53].

나. 『조선지명편람』[54]

〈표 8〉은 『편람』의 서지 내용이다. 각 책의 면수는 394-695면에 달하며, 각 권의 발행일은 2001년 1월-2002년 6월 사이이다. 참여 인력은 집필과 심사, 교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담당 학자는 『평양시편』의 경우 방린봉, 조창선, 박명훈, 리정희, 백운혁, 리성환, 박인직 등 7명의 공동 집필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1명의 학자가 단독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책의 편제는 도별로 구성하였으며, 지명 항목은 소속 시·군과 관련없이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55]. 지명의 설명 내용이 『고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책은 모두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를 기본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북한에서 편찬된 사전에서 지명 유래의 설명에 이용된 사료는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후기의 『대동지지』 등을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고지도는 『대동여지도』를 제외하고는 언급이 없다. 일제강점기 내용은 『신구대조』를 문헌 표시 없이 인용하고 있다.

〈표 8〉 『조선지명편람』 편찬 체제[56]

『조선지명편람』	권수	면수	출판일	집필
평양직할시	54	674	2001. 1.	방린봉 외 6인*

52)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53) 『조선향토대백과』의 「편찬경위」에 보면 『고장이름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남한에서 편찬되기 때문에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재편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54) 방린봉 외, 『조선지명편람』(전1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2002. 4·6배판, 각 권 600면 내외.

55)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선글자자모순〉으로 지명이 배열되어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방린봉, 「머리말」, 『조선지명편람: 함경남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56) 김기혁, 앞의 글, 2013, 22면.

평안남도	55	529	2002. 5.	안경상
평안북도	56	695	2002. 6.	박명훈
함경남도	57	734	2002. 5.	방린봉
함경북도・나선시	58	650	2002. 5.	조창선
자강도	59	442	2002. 1.	장근수
양강도	60	332	2002. 5.	강진철
강원도	61	491	2002. 1.	서학순
황해남도	62	672	2002. 5.	리성호
황해북도	63	704	2002. 5.	안순남
개성시・남포시	64	394	2002. 5.	장영남

* 방린봉, 조창선, 박명훈, 리정희, 백운혁, 리성환, 박인직.

(2) 사전별 내용 비교

〈표 9-10〉은 평양시의 '보통문동'과 강원도 원산시 '해방동' 지명을 사례로 『고장』, 『편람』과 남한에서 편찬한 『유래집』의 서술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보통문동'(〈표 9〉)은 1955년에 평양에서 새로 생긴 지명으로, 평양성 서문인 보통문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항목 표기에서 한자는 북한사전에서는 괄호 안에 부기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유래집』에서는 병기되어 있다. 한편 '남한편'에서 모든 지명에 병기되었던 로마자 표기는 『북한편』에서는 시・군 지명만을 대상으로 남한식과 북한식 표기를 병기하였다.

〈표 9〉 북한 평양시 '보통문동' 지명 서술 내용

『고장이름사전』 **보통문동(普通門洞)** 구역의 서북쪽에 있는 동. 주체44(1955)년에 서성1동 일부와 서성4동 일부를 분리병합하여 내온 동인데, 보통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보통문동〉이라 하였다. 동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보통문공업품상점이 있다. 동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난날 토성랑으로 불리우던 보통강반에 현대적인 천리마거리가 형성되었으며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광,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다. 동에는 6세기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중성의 서문으로 세운 성문이 있다. 일반사람들 누구나 다 나들수 있는 문이라 하여 〈보통문〉이라 하였다. 동에는 보통강변을 따라 토성의 흔적이 있다.[57]
『조선지명편람』 **보통문동(普通門洞)** 구역의 서북쪽에 있는 동. 주체44(1955)년 2월 서성1동 일부와 서성4동 일부를 분리하여 내온 동이다. 보통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보통문동〉이라고 하였다. (…) 보통문동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보통문공업품상점이 있다. 동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토성랑으로 불리우던 보통강반에 현대적인 천리마거리가 형성되었으며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광,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등 기념비적 건물들이 일떠섰다. 동에는

보통강반을 따라 토성의 흔적이 있으며, 평양성의 서문인 보통문이 있다.[58]

『한국지명유래집』 **보통문동 普通門洞** 구역의 서북쪽에 위치한 동이다. 보통강 지류에 연해 있으며, 평양성의 서문이었던 보통문과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이 있다. 1955년 서성1리와 서성4리 일부를 통합하여 신설한 동이다. 조선시대에 평양부 내천면 신양동, 서월동, 강촌동에 속하였는데 1914년 대동군 고평면 서성리로 통합되었다가 1955년에 동을 신설하면서 보통문의 이름을 빌어 명명한 것이다. 보통문은 평양성의 서북쪽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교통과 관방에 매우 중요시되었던 문이었다. 보통강나루터에서 나그네를 떠나 보내는 모습은 '보통송객(普通送客)'이라 하여 평양팔경의 하나로 전해온다.[59]



『해동지도』(평양) 보통문 일대

지명 서술을 보면 북한사전에서 '보통문' 지명은 역사유적에서 비롯된 것이나 고딕체로 이름을 강조한 지도자의 현지 지도의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지명 해석을 통해 체제 찬양을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에서는 『고장』은 정의-유래-지명유래-사회주의 찬양 내용-관내 건물-역사적 배경-'보통문'의 이름 유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편람』과 비교해 보면, 순서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편람』에서는 '보통문' 이름의 유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사전 편찬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편집한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남한에서 편찬한 『유래집』에서 서술 내용을 보면 정의, 관내 소재 건축물을 비롯하여 1955년 이후 지명 변천 등 지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은 북한사전과 유사하다. 그러나 19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시대 이후 지명 변화와, 보통문에 대한 역사지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군현지도인 『해동지도』에 묘사된 보통문 일대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지명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지명 해석에서 남·북한 이질성이 있으나, 동일한 사료를 바탕으로 지명 유래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7) 정순기, 「중구 서성리1-5리」, 『고장이름사전: 평양직할시, 남포시』,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37면.
58) 방린봉 외, 「중구」, 『(조선어학사전 제54권) 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62-63면.
59) 대한지리학회, 「평양직할시 중구」, 『한국지명유래집: 북한편』, 국토지리정보원, 2013, 111면.

강원도 '해방동' 지명(〈표 10〉)은 일제로부터의 광복(光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하여 명명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이에 비롯된 지명은 부산광역시의 '광복동(光復洞)'이 유일하다. 반면에 북한에서 '해방'을 이용한 지명은 적지 않다. '해방동'은 나선시를 비롯하여 신의주, 청진시, 함흥시에, '해방리'는 강원도 고산군과 고성군, 평강군과 황해도 옹진군, '해방산'과 이에 비롯된 '해방산동'은 평양시와 강원도 문천시 등 12곳에 있다[60].

'해방동'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을 보면 북한의 『고장』과 『편람』을 비롯해 남한의 『유래집』에서 광복과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 구성을 보면 『고장』에서는 지리적인 내용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편람』에서는 김일성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설명되어 있다. 『유래집』에서는 광복 이후 새로 생긴 지명이기 때문에 사료에 근거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명이 생겨난 후 변천 등 지리적인 사실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전 지명인 '철산'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표 10〉 북한 원산시 '해방1-2동' 지명 서술 내용

『고장이름사전』 **해방1동(解放一洞)** 시의 중심에 있는 동. 동쪽과 북쪽은 동해 바다와 접해 있으며 서쪽은 해방2동과 남쪽은 해안동, 원성동과 각각 잇닿아 있다. 주체56(1967)년에 해방동을 해방1동과 해방2동으로 갈라 내 온 동인데 광복의 기쁨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해방동〉이라 하였다. 주체 56(1967)년에 해방동을 해방1동과 해방2동으로 분리하였다. 동의 동쪽 바다가에는 원산혁명사적관이 있으며 동의 동쪽 변두리에는 송도원 거리와 해안거리를 련결하는 해안도로가 있다.[61]
『조선지명편람』 **해방2동** 원산시에 있는 동. 1961년 3월에 철산동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 내온 동인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조국개선로선사적지가 있는 곳이라 하여 불리운 이름이다. 1967년 10월에 1, 2동으로 갈라졌다.[62]
『한국지명유래집』 **해방1-2동** 解放一二洞 시의 북쪽에 있는 동으로, 중심 시가지에서 동해에 접한 북쪽에 있다. 1961년에 원산시 철산동 일부를 분리하면서 신설된 동이다. 1967년에 해방1・2동으로 분리되었다. 해방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옛 지명인 철산동은 일제강점기에 반일투쟁을 했던 김철산(金鐵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63]

60) 같은 책, 1,671면 색인.
61) 김성근, 「원산시」, 『고장이름사전: 강원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44면.
62) 서학순, 『(조선어학전서 제61권) 조선지명편람: 강원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421면.
63) 대한지리학회, 「강원도 원산시」,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9, 1,474면.

5. 맺음말: 국가 지명사전 편찬의 지향점

1) 요약: 남·북한 지명사전 비교

〈표 11〉은 광복 이후 남·북한에서 편찬된 지명사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남한의 『총람』, 『유래집』과 북한의 『고장』 사전의 내용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편찬 과정은 대부분 오랜 기간 소요되었으며 결과물도 20책, 6책, 10책으로 분량이 적지 않다. 이들 사전의 공통점은 지명 항목이 시·군별로 편제되고, 지명 배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자모순을 이용하여 배치되어 있는 점이다. 고지명과 이칭은 방법만 다를 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지명사전이 모두 전통적인 지리지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항목 서술에서 행정지명 내용의 구성은 이칭, 위치, 연혁, 지리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래 설명에서 남한의 『유래집』에서는 주로 사료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고장』의 경우 사회주의 찬양 내용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연도 표시를 보면, 조선시대는 재위 년을 함께 부기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20세기 이후는 북한은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표 11〉 주요 지명사전 내용 비교

	남한		북한
	『한국지명총람』	『한국지명유래집』	『고장이름사전』
발행연도	1966-1986(21년)	2008-2013(6년)	2000-2002(3년)
권·책수 (편제)	전18권 20책(도별)	전5권 6책(지역별)	전10권 10책(도별)
편제	도-시·군 자모순	도-시·군 행정위계 순	도-시·군 자모순
고지명	표제어 정의에 수록	본문 속 이칭 수록	항목으로 수록
연도 표시	· 태종 13년(1413년) · 1914년	· 1413년(태종 13) · 1914년	· 태종13년(1413년) · 주체41(1952년)
지명 항목 내용 구성	[광복동 사례] 한글(한자)-유형-지명 변천을 중심으로 서술.	[광복동] 한글·한자·로마자·이칭-정의-지명유래-역사지리	[보통문동] 정의-지명 변천-체제 찬양-지명유래

인용 지리지	조선	없음	『삼국사기』「지리지」·『고려사』「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 『읍지』 등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일제	없음	『조선지지자료』·『신구대조』	없음
인용 고지도 (조선·일제)		군현지도·도별도(각도) 사적지 사진 수록	조선전도, 군현지도, 『청구도』·『대동여지도』·『조선지형도』	『대동여지도』
지도 이미지		시군별 도입부에 군현지도 이미지 삽입	도입부: 지형도 및 도 위치도 본문: 해당 지명 기재 고지도	도별 지형도

사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술에서 지도 이미지와 지리지·고지도 등의 사료 인용 여부이다. 지도 이미지와 관련하여 남한의 『총람』은 시·군별 도입부에 도별지도와 함께 군현지도, 사진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으나 서술에서 지리지와 지도 인용은 거의 없다. 북한의 『고장』에서는 각 도의 도입부에는 현대 지형도를 수록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유래 설명에서는 『삼국사기』,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와 『대동여지도』의 고지도만을 간헐적으로 인용할 뿐이다. 이에 반해 남한의 『유래집』에서는 도입부에는 시·군 지도가 제시되어있으며, 지명 서술에서 지리지를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또한 지명 항목 서술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고지도의 부분 이미지를 수록하여 역사지리적인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2) 국가 지명사전 편찬의 지향점

지명은 장소를 명명한 단순한 언어 기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담긴 텍스트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공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지명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함께 담겨 있는 지역을 텍스트로 풀어나가는 작업이다. 또한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당 시대의 모든 것을 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지금의 생활공간을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의 복잡한 지명 전개 과정을 긴 호흡으로 충실하게 담아낸 사전 편찬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여러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도 있겠으나, 20세기 초 나라를 강점당한 후 광복 이후에도 국토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분단 이후 지명의 이질화가 국토와 함께 전개되면서 이의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접 국가처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도 방대한 지명사전을 편찬한 경험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명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대부분 영토나 영해 지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서 지명 정보 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구축되면서 지명의 속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명이 워낙 일상적이고 누구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단순하고 안이하게, 때로는 흥미 위주로 접근한 데에서 기인한다.

1960년대에 『한국지명총람』 편찬된 이후 남한 사회는 도시화 등으로 생활공간이 큰 변모를 겪었고 이와 함께 지명 변화도 수반되었다. 더군다나 지방과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과 함께 지명의 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지명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명의 종합적인 정리를 국토 완성 이후로 미루려 한다면 이는 기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명이 소멸된 이후일 것이다.

국가 위상에 어울리는 지명사전이 아직 편찬되지 못한 것은 국토 관리의 수준과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지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전략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우선 남한 국토만을 대상으로 『총람』 편찬 이후 50년의 간극을 넘어서는 21세기의 국가 지명사전 편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의 방향은 ㉠ 진정성(authenticity), ㉡ 표준화와 다양성의 조화(diversity with standardization), ㉢ 외연 확장성(expandability)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진정성'은 지명사전의 편찬 목적이 뚜렷하고 정확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일과성(一過性) 사업이 아니라 국토가 지닌 역사성,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과거 삼국시대

에 분할되었던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강역의 지리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미래로는 국토의 완성을 내다보고 북한과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시선이 담긴 사전으로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화와 다양성'은 사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형식과 지방의 지역성(locality)이 함께 담겨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지리지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이미 발간된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며,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성이 요구된다. 지도에 담을 수 없는 고지명, 이칭 등 다양한 내용이 사전에 함께 담길 때 생동감 있는 지명사전이 될 수 있다.

사전에서 현장성을 함께 담아내려 할 때 중앙과 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조화는 편찬에서 필수적이다. 중앙에서 사전적(事前的)으로 표준화된 지명 목록(gazetteer)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도・광역시)-시・군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편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지방 주관으로 발간된 지명사전의 활용은 현장성을 담아내는 데 필수적이고, 동시에 지방에서 수준 높은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확장성'은 지명사전이 단순히 책(hardcore)으로 구현될 뿐 아니라 디지털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지역별 혹은 지명 유형별 편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세대에서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명의 속성인 순차적 점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정리된 고지명을 통해 비로소 수준 높은 국토 연구가 가능하며,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사지도 편찬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명사전의 편찬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기획과 추진력을 갖춘 위원회 혹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지금 지도 제작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지도에 기재되는 고시 지명을 관리할 뿐이다. 현재 중앙 기관에는 국어학, 한국사 분야와는 다르게 국가 지명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를 뺏긴 지 100여 년이 지나고 반쪽만 찾은 지금, 나라가 힘이 부치면 민간 영역에서라도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경성제국대학, 『대동여지도 지명 색인』, 제국대학 법문학부, 1936.
국립국어원, 『로마자표기용례사전』, 문화관광부, 2000.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2009.
권상로 편,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1961.
김기혁, 「북한의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14-30면.
_____, 「도로 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 구조 변화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6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4, 33-54면.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명요람』, 국립지리원, 1983.
_____, 『한국지지』 Ⅰ-Ⅴ, 국립지리원, 1984-1988.
_____, 『한국지리지』 1-5, 국토지리정보원, 2004-2008.
_____, 『지명표준화방안연구』, 국토지리정보원, 2005.
_____,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_____,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국토지리정보원, 2010a.
_____,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2010b.
_____,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2011.
_____, 『한국지명유래집: 북한편』, 국토지리정보원, 2013.
동아출판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2.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존재와 시간』(1927), 이기상 역, 까치, 1998.
박병철,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지명학』 제30집, 한국지명학회, 2019, 111-156면.
三橋僊史, 『조선지명안내』, 學農社, 1894.
小藤文次郎・金澤庄三郎, 『조선지명자휘』, 東京帝國大學, 1903.
손성우, 『한국지명사전』, 경인문화사, 1974.
송호열, 『한국의 지명변천』, 성지문화사, 2006.
오치 다다시치,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칭일람』, 中央市場, 1917.
이민우, 『한국지명사전』, 한국교열기자협회, 1993.
_____, 『지명대사전』, 연합뉴스, 2004.
이병연, 『조선환여승람』, 普文社, 1910-1937.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일본육군참모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50,000), 일본육군참모부, 1890.
임용기, 「『조선지지자료』와 부평의 지명」, 『기전문화연구』 제24집, 기전문화연구소, 1996, 141-250면.
정용신 편, 『한국 고지명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조선총독부, 『조선지지자료』, 조선총독부, 1910-1914.
_____,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1912.
_____, 『조선지형도』, 조선총독부, 1914-1918.

_____,『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1942.
최남선,『대동지명사전』(1931), 육당 최남선전집 8권, 현암사, 1973.
한국역사지명사전 편찬위원회,『한국역사지명사전』(전자), 누리미디어, 2005.
한국지명학회,『한국지명연구』, 이회문화사, 2007.
한국측량학회,『한국의 산지』, 국토지리정보원, 2007.
한국하천협회,『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교통부,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 문교부, 1966-1986,
_____,『지명유래집』, 국립지리원, 1987.
_____,『한국 땅이름 큰 사전』 상·중·하, 문교부, 1991.
_____,『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홍시환,『한국지명연구』, 육군사관학교, 1968.

과학백과사전출판사,『고장이름사전』(전10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김봉환,『고장이름변천역사』, 1992.
김봉환 외,『고장이름유래집』, 1986.
김일성,『김일성저작집 18: 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a.
_____,「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 20: 1965.11-1966.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b.
리성남·윤광현,『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 1999.
박명훈,『(조선어학전서 35) 조선지명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박재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원, 1999.
_____,『조선언어학에 대한 연구』, 박이정, 2000.
박태훈 외,『조선지명사전』, 1995.
방린봉,『(조선어학전서 34) 조선어명칭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방린봉 외,『조선지명편람』(전1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2002.
정순기,『(조선어학전서 36) 조선지명 변천에 대한 력사문헌학적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조창선,『(조선어학전서 37) 조선지명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평화문제연구소·(북)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조선향토대백과』(전20권), 평화문제연구소, 2004.

下中邦彦 編,『日本歷史地名大系』(全50卷), 東京: 平凡社, 1979-1986.

【Abstract】

Progress and Prospect of Dictionary of Place Names in Korea

Kim, Ki-Hyuk*

The publication of dictionary of place names and gazetteer in Korea began with modern mapping in early 20th centur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Of course, many historical geography and old maps were published in Joseon dynasty, but those books were not dictionary in terms of a mordern sense. As in Europe, systematic compilation of place names began with the topographic large-scale mapping, Mapping were led by Japan and early product of dictionary were not beyond the gazetter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place names.

The publication of dictionary began after Independence since 1945. But division of land caused the different environment of place names because of communist ideology. Many dictionaries of place names were published, and the representatives in south Korea are *Dictionary of Place Names in Korea* (韓國地名總覽, 1966-1986, 20 Vol.) and *the Origin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韓國地名由來集, 2008-2013, 6 Vol.). In north Korea, *Dictionary of Place Names of County* (고장이름사전, 2001-2002, 10 Vol.). In the *the Origin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among those dictionary, origin of place names in south and north Korea were explained through the old maps and historical geography published before the division of land.

Even though many dictionaries of place names were published since 1945, dictionary with the systematic and detailed explanation about place names were very rare. This is due to many reasons. The shortage of academic research of place names or toponyms is the most important reasons. The legitimate and national-scale publication of dictionary of place names should be proceed with long-terms, but divison of land is the great barrier. And the other reason is that government policy of place names are almost focused on the territorial problem, such as 'Dokdo (獨島)' and 'East Sea (東海)'. This distorted distribution of resource are become the obstacles to the long-term research of place names on national scale. National Dictionary of Korea

* Emeritus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Place Names in 21th century should compiled toward the reflection of histotical context of land, diversity with standardization of place names and expandibility of database.

Keywords: Historical Geography, Old Map, *Dictionary of Place Names in Korea*, *the Origin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Dictionary of Place Names of Native County*.

접수일: 2019.10.03.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15.